

한형조 무문관 탐방

(26)

문문의 똥막대기 ㉔

*누가 문문에 물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문문이 말했다. "똥간의 똥막대기다."
 *나 해개가 말한다. "문문은 집이 가난해 변변히 차리지도 못하고, 일이 바빠 갈겨 쓸 틈도 없구나. 갈겨갈려 똥막대기를 가져다가 문짜를 때받치니 불법의 흥취를 가히 알겠다."
 *송하여 가로되, 번갯불이 번쩍하고 부싯불이 튀긴다. 눈 깜박할 새에, 그것은 지나가 버렸다.



그림·이준석

이심전심(以心傳心), 둘은 말없이 서로 마음을 주고받았다. 문문은 설봉의 문하에서 몇년을 지내며 선의 깊이에 점점해 들어갔다.

설봉으로부터 법의 인종을 받은 문문은 각지를 순방하며 곳곳에 깊은 족적을 남겼다. 마지막으로 도탄한 곳이 영수(靈樹). 지성(知聖)선사가 20년간을 주석하고 있던 곳이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지성 선사는 대중들의 리더격인 방장 자리를 비워놓고 있었다. 사람들에게는 곧 누군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리라는 신비스런 예언을 하면서, 어느날 지성선사는 갑자기 종을 울려 대중들을 산문밖으로 모았다. 그분이 이제 도찰했으니 나와서 맞으라는 것이었다. 다음 우르르 달려 가보니 그곳에 우뚝 문문이 서 있었다.

문문의 증상은 독특하다. 앞으로 두어 차례에 걸쳐 그것을 더듬어 보려 한다. 가령, 다음과 같은 일화를 보자. 지성 선사가 입적한 후, 문문은 영수의 방장이 되었다. 그곳을 관장하는 관자가 취임식에 참석했다. "똥난 제자가 가르침을 구합니다." 이 겸손한 물음에 문문은 이렇게 대답했다. "눈 앞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目前無別路)." 이 대답은 의미심장하다. 문문은 아마도 일주문 앞을 가리키며 이 말을 했을 것이다. 산문밖에 마을로 나 있는 길은

"똥난 제자 가르침을 구합니다" "눈앞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적하고서 문문은 한쪽 눈을 열었다. 목주는 나머지 반쪽 눈을 띄워주려고 그를 설봉에게 보냈다. 설봉은 밥그릇을 들고 어슬렁거리던 덕산을 시험대 위에 세운(제13칙) 바로 그 사람이다.

문문이 설봉을 찾아왔을 때의 일이다. 설봉이 거하던 산 밑에 다다른 문문은 한 승려를 만나 이런 부탁을 했다. "설봉화상이 집회를 열거든 두손을 맞잡고 그 앞에 당당히 서서 <불쌍한 사람, 어찌서 목에 찬 칼을 벗지 않는가>라고 말하십시오. 절대로 내가 시켰다는 말은 말고 말이오." 그 승려는 문문이 일러준 대로 연기를 했다. 설봉은 즉각 자리에서 내려와 그 승려의 목살을 붙들고, "어디 말해 봐, 말해"라고 물었다. 승려는 예기치 않은 반응에 어찌할 줄을 몰랐다. 설봉은 "그거 네가 한 말이 아니지?" 하고 재차 다그쳤다. 처음 승려는 자기가 한 말이라고 우기다가 서슬퍼런 추궁에 사실대로 실토했다. "실은 절강에서 온 어떤 스님이 시켜서 그리 했습니다." 이 말에 설봉은 대중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그대들이여, 산 밑으로 내려가 5백 수행승들의 정신적 지도자가 될 그 사람을 모셔 오라!"

다음날 문문이 도착했다. 그를 보며 설봉이 물었다. "어떻게 지금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는가?" 문문은 고개를 떨구고 말이 없었다.

오직 하나이다. 그러나 이 대답이 그 이상을 함의하고 있다는 것은 읽사리 짐작할 수 있다. 하나뿐인 길은 무엇이고, 어디로 향해 있을까.

어느날 문문은 공중에서 열리는 잔치에 초대되었다. 정부의 고위관리 하나가 문문에게 물었다. "영수(靈樹)의 과일은 익었습니까(靈樹果子熟也來)." 문문이 주석하고 있던 영수(靈樹)는 <신령스런 나무>라는 뜻을 담고 있다. 관리는 그 신령한 나무에 과일이 잘 익었느냐고 물었던 것이다. 이 물음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 우선 소문난 문문 당신의 정신적 경지가 어느 정도이나, 즉 선의 공극적 진리를 과연 깨쳤느냐. 둘째, 당신은 한 산문의 지도자로서 수백의 제자들을 선의 진리로 잘 이끌고 있느냐. 어느 편이든 속기를 벗지 못하고 거들먹이 배어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이 질문에 문문은 이렇게 대답했다. "어느 해인들 익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까(什麼年中, 得信道生)" 여기서 독자들은 일년 내내 달려 있는 과일이나, 갑자기 정지해 버린 사선 속의 풍경을 떠올려보는 안된다. 문문은 지금 정지된 시간이 아니라 시간을 넘어선 어떤 곳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문문의 <하나뿐인 길>이 그 어디쯤에 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번뇌식으로써의 말나식은 다시 어떤 모체의 마음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특징이 있다. 제7말나식이 앞의 오식과 육식을 되받아서 번뇌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 근거는 좀더 근원적인 마음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제7식의 근거가 되는 식을 제법 아뢰야식이라고 한다.

아뢰야식은 알라야 비야나(alaya-vijnana)의 음역으로 장식(藏識) 무분식(無分別識)이라고 번역하며 일체를 포함하는 마음, 없지 않고 모든 것을 유지시키는 마음이라는

팔식(八識) ㉕

뜻을 가지고 있다. 특히 여러가지 심식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면서 광대한 뜻을 가진 것이 이 아뢰야식이다. 아뢰야식은 앞의 말나식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일체의 세계를 그대로 저장하고 있는 과보의 마음임과 동시에 그 저장된 세계를 다시 말나식을 통해 나가게 하는 종자의 마음이다.

유식론에 의하면 자신과 산하대지는 물론 인식되어지는 일체 세계는 아뢰야식에서 나타난 그림자이다. 그뿐이다. 아뢰야식은 모든 생명의 원동력으로 윤회의 주체가 되기도 한다.

전생업의 총보 이면서 금생과 내생업의 종자인 아뢰야식은 철칙과 함께 강력한 애착력이 있어 삶과 죽

法數로 배우는 불교

<36>



가운데는, 그가 지은 유식론을 지니니, 고요한 영수(靈樹)에, 때로는 익히게 했다.

◇이철수 작 '적멸'

아뢰야식 일체세계 저장...윤회 주체 7식번뇌 제거하면 8식청정 되찾아

음을 되풀이 되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이곳에는 전생의 크고 작은 번뇌들이 가득히 저장되어 있으면서 인연이 도래하면 제7 말나식을 다시 총동원하여 번뇌를 짓고 업을 짓는 것이다.

유식론에 의하면 아뢰야식은 철칙에 의하여 오염되기는 하지만 그 참

된 성품은 아주 참되고 청정하다는 것이다. 다만 중생들이 어리석어서 철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집착의 요소를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소를 갖춰 버리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7식인 말나식 기준으로 앞의 6식과 뒤의 8식을 정화해야 한다.

아뢰야식 속에는 7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크고 작은 중생의 모든 더러운 법이 들어 있을 뿐 아니라 오염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청정한 법도 들어있다. 이렇게 자신과 세계, 법부와 성현을 모두 갈무리하고 있는 이 아뢰야식은 모든 것의 근원체이며 발생처이며 보관처로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불매 중생이라고 하여도 마냥 중생은 아닌 것이 중생의 아뢰야식속에 있는 철칙의 번뇌를 제거하기만 하면 그대로 부처님과 같이 되는 것으로 언제나 변화 될 수 있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가지고 비유를 든다고 할 때 전오식은 곡식을 누르는 다섯명의 일꾼에 해당되고 6식은 곡식 창고를 지키는 문지기(해당)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7식은 그 창고를 소유하고 있는 곡식의 주인에 해당되고 8식은 창고와 곡식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창고와 곡식의 주인이다. 곡식의 주인은 더러운 욕심으로 쌓아둔 창고의 곡식을 영원히 자기 것인 양 착각하고 있다. 본래 창고 속에 들어 있는 곡식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 곡식은 모든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이다. 어서어서 창고 주인이 죽기 전에 회심하고 그 곡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아 만민들에게 신통 거두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제 열 <유마선원장>

불교와 수학

(29)

돈교와 점교

김용운

돈(頓)은 일정한 단계를 밟지 않고 비약적으로 높은 종교적 입장에 당도케 하는 것이며 점진(漸進)이나 단계적 방법을 쓰지 않고 직접 대응의 깊은 이치를 얻는 것을 뜻한다. 한편 그 것과는 대조적으로 점교는 차례를 밟아 점진적으로 오랜 수행

한번에 깨치면 돈오...단계 거치면 점수 지식의 축적 '점' 생각하는 힘 '돈'

을 겪어 대오의 경지에 이른다. 때때로 불교계에서는 돈·점(頓·漸) 논쟁이 벌어진다.

그 내용을 듣고 있으면 마치 조선시대 주자학의 이기(理氣) 논쟁을 방불케 한다. 이(理)가 있고 그 위에 기(氣)가 나타난다. 아니다. 기가 있음으로써 그 속에 이가 나타난다는 식의 대답이다. 모든 현상을 이(理)와 기(氣)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까지는 공통인데 어느 쪽에 역점을 두느냐에 따라 주리(主理), 주기(主氣)로 나누어진다. 특히 오랜

조선 주자학의 논쟁 역사를 찾는 한국인에게 심각한 논쟁점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철학적인 논의이기에 보는 입장에 따라 어느 쪽에도 일리가 있는 것 같다. 나와 같은 범속한 사람에게는 돈, 점 어느 쪽도 그럴싸한 논리이다.

이에 관한 비슷한 문제에 수학자는 관심을 가져왔다. 즉 수학적 진리(법칙)에 도달하는 것은 직관일까? 아니면 누적된 지식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일까 라는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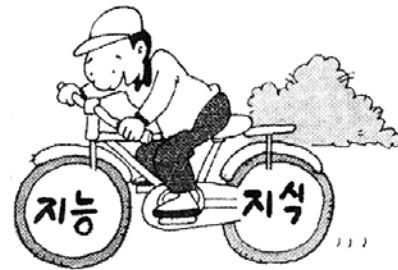
이 문제는 지능과 지식을 혼동하는 데서 나온 것 같다. 우선 지능과

지식이란 무엇인가를 밝히고 지능과 지식의 관계를 확실히 해야 논의가 가능하다.

수학에 있어서 덧셈, 뺄셈, 곱셈 또는 기호와 문자는 지식이다.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지능은 생각하는 힘이며 지식이 많다 해서 반드시 지능이 높다고는 말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문제를 생각해 보자.

다음의 수열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배열되어 있다. 전후 관계를 살펴 보고 빈 칸() 속에 적당한 숫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34



그림·최주현

자를 넣어라
4, 5, 3, 9, 10, 8, 24, (), 23

이 수열은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배열되어 있다.
4, 5, 3, 9, 10, 8, 24, (), 23
+1 -2 x3 +1 -2 x3 +1 -2

다시 말해서 차례로 +1, -2, x3을 계속해 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 속에는 24에 1을 더한 25를 넣어 야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덧셈, 뺄셈, 곱셈의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지식을 갖는다고 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나 하면 그렇지 않다. 배열되어 있는 숫자의 전후 관계를 유추해서 "+1, -2, x3"이라는 수열의 규칙을 스스로 생각

해 내야 한다. 이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의 지식을 바탕으로 수열의 규칙을 생각해 낼 힘이 필요하다. 지능이란 '생각하는 힘', 다시 말해서 지식은 '새로운 국면에 활용하는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다. 지식의 축적을 점(漸)으로 한다면 생각하는 힘은 돈(頓)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수학 연구는 이 점(漸)과 돈(頓)의 엄밀 속에 발전해 간다.

불교적인 대오의 경지에 도달하는 일은 수학과 같은 것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소도 비발 언덕이 있어야 비바다'는 속담과도 같이 수행 단계가 필요한 것은 같지 않을까?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백화사설초

약(藥)이 되는 신비한 약용식물 『백화사설초』

암을 퇴치 예방, 각종 질병에 효과 입증

기적의 한국산 약초



★ 특허출원 제 26218호

신비한 약초로 생약업계에서 구전되어온 백화사설초(白花蛇舌草)가 지난 93년부터 우리땅에서 재배가 이루어져 최대의 화제가 되고 있다. 「항암과 소염」에 뛰어난 효능이 있는 생약재 백화사설초를 직접 재배하고 양장시키고 있는 사람은 김나진자 사장과 공 급에는 불심원 원장 법현법사이다.

김나진자 사장은 30년간 청과물 도매업으로 그 분야에서는 성공을 했으나, 오랫동안 객지생활로 인한 각종 질병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부부 는 양의는 물론이고 한방병원까지 다녔으나 백악이 무효였다. 고통과 실망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중 우연히 친척 동생으로부터 「백화사설초」의 효능을 듣고 복용한 결과 혈액순환장애, 위장병, 각종 염증성 질환, 피부병, 마 비증상등의 합병증을 말끔히 치료할 수 있었다.

김나진자 부부는 백화사설초의 덕택으로 모든 병들이 완전히 치료되어 새 생명을 얻고 이 사설초의 효능에 확신을 얻게 되었다. 그리하여 병원에서 치유 불가능한 선고를 받은 다른 환자에게도 권유 다른 약을 일절 쓰지않고 백화사 설초만으로 꾸준히 병을 다스리며 치유하고 있다.

이들 부부의 회생하게 된 소식을 듣고 약초를 구입하게 된 사람들도 대단한 효과를 보고 공감하게 되었으며 불심원 원장 법현법사는 스님들과 2천만 불자들의 건강에 앞장서고 있다.

특징 및 효능

이 풀의 특징은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항체 형성을 촉진시키는 힘의 탁월함에 있다.

백화사설초는 청열해독약(淸熱解毒藥)으로도 쓰인다. 「청열」이란 한량(寒凉), 약성(藥性)으로 체내의 이열(熱)을 내린다는 것이며, 「해독」이란 일반적으로 감염증의 발열이나 수반되는 병리변화 및 각종 독소로 인한 반응을 풀어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백화사설초는 약성이 한량하다. 이 열을 내리고, 체내의 응 어리를 풀어주며 독소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한방용어로 청열·기어·소염·해독이라고 한다.

※ 싱가포르대학 화학 이광선 박사는 "간암으로 흉공의 권위있는 어느 병원에서 조차 치료약이 없다고하여, 백화사설초를 매일 150g씩 전탕해서 복용하니 3개월만에 완치되었다."고 한다. (「녹차와 약차」 동화문화사, 신재용 생활필서 중에서)

■ 지금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백화사설초를 복용하시어 완쾌되시길 기원합니다.

각종문헌에 나타난 효능

- ◎ 항암본초 (상인의 편저, 김수철 역주) 위암, 식도암, 직장암, 자궁암, 기타암증
- ◎ 묘약기방 (조규형 저, 범진문화사) 간염, 장염, 요충감염, 맹장염, 편도선염, 인후염, 각종 종기, 타박상, 위염, 직장암, 간염, 자궁경암, 방광암
- ◎ 녹차와 약차 (동화문화사, 신재용 생활필서) 간염, 장염, 요충염, 인후염, 급성 충수염
- ◎ 백화사설초 (진천인 저, 동도문화사, 권, 한방의학대사전중) 급성 충수염

추천의 말

「백화사설초는 한약의 대표적 항암생약이다.」 한국자연생약보호협회장 이학박사 한영제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신비한 약용 식물인 백화사설초」 경남생약연구소장 약학박사 성원길

중요한 점이 있으신 문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신농산 (051) 465-5100, 467-5200